

신동진 벼 관련 정책 유예 여부 '관심'

농식품부,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보급종공급 중단 등 정책 유예 '긍정적 검토' 중

전북도는 신동진벼에 대한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2024년)과 보급종 공급중단(2025년)에 대하여 최소 3년이상 정책유예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우리도는 과거 운광, 새누리과 같은 다수확 품종의 경우에도 농촌현장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정책유예를 해준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해 왔다.

정부방침 발표 이후 신동진 재배면적이 많은 군산, 김제 지역을 중

심으로 신동진 벼 매입중단에 대하여 시군의회, 농민단체, 농협 등에서 반발이 심하다는 현장 상황과 15개 농업인단체연합회와 전라북도의회 성명서 발표 등 도내 정서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신동진벼를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이유가 10a당 수량이 596kg으로 다수확 품종(570kg이상)에 해당되어 과거 유사품종도 매입하지 않은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내 벼 재배면적의 53%

를 차지하는 신동진의 특수성과 도내 34개 RPC에 신동진 브랜드가 88개에 달하고 있어 급격한 정책전환이 가져올 부작용도 우려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의 3년이상 정책유예가 필요한 것은 농가가 참동진 등 신동진 브랜드에 버금가는 대체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시험재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도 강력히 주장하였다.

우리도의 전체 쌀생산량 중 정부 공공비축미 의존도는 전체 62만톤

중 7.1만톤인 11.4%이고, 이중 신동진의 공공비축미 의존도는 8.4%인 5.2만톤으로 우리도 전체 생산량으로 볼 때 적은 수준이나,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제한에 따른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타작물 전환을 위한 쌀 적정생산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해 벼 재배면적인 11만3,775ha의 5.1%인 5,777ha를 논공, 사료작물 등 타작물 재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 약취 민원 대응 간담회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매년 20%씩 증가하는 약취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7일 도·시·군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찾아가는 환경민원 처방의 성과 및 개선사례를 안내하고 올해 환경민원 처방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전북도,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신규 중소기업 모집

3개 사업에 45개사 선정·총 사업비 102억원 지원 계획... 기술개발·현장으로 기술해결·사업화 마케팅 등

전북도가 '2023년도 전라북도 돌음·도약·선도기업 육성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는 (1단계)돌음기업, (2단계)도약기업, (3단계)선도기업, (4단계)스타기업, (5단계)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돌음·도약·선도기업 육성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올해 102억원을 지원해 고물가, 수출 둔화, 무역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내외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돌

움기업 육성사업(신규 20개, 32억원), 도약기업 육성사업(신규 15개, 20억원), 선도기업 육성사업(신규 10개, 50억원)이다.

돌음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첫 단계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해 전북을 대표하는 기술혁신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돌음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형 교육, ESG 경영 활성화 등을 지원받는다.

도약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2단계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전북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약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성장전략 수립 등을 지원받는다.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3단계로,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한다.

선도기업은 지정기간 5년 동안 기술개발(R&D), 현장으로 기술해결, 사업화 마케팅, 지속가능경영 확산, 리더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신규 참여기업 모집 접수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다.

참여 신청 및 신청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누리집(www.j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고물가, 무역 적자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9개 지방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기후변화 대비... 하천 종합정비·관리방향 수립

전북도는 올해 20억원을 투자해 죽청천 등 9개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9개 하천은 죽청천(익산), 백암천(정읍), 보림천(정읍), 흑암천(정읍), 월평천(남원), 계수천(남원), 황금천(진안), 삼가천(무주), 원산천(임실)이다. 이들은 모두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환경부에서 최근 발표한 '홍수량 선정 표준지침'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최신 강우를 반영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자원·환경 등 전문가 그룹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읍·면 단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의 사유재산 등 권익 보호에도 힘을 기울인다.

홍인기 도 물통합관리과장은 "하천기본계획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하천 재해 시 복구사업의 기본이 되는 상위계획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치수에 안전한 하천을 기본으로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불필요하게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과감히 지방하천에서 제척해 도민의 사유재산 침해 등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전북연구원,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공감 확산

13일까지 찾아가는 권역별 시·군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달라지는 점·발전 방향 등 설명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도내 시·군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달라지는 점, 전북만의 발전 방향 등을 설명해 도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7일 남원시청을 시작으로

8일 김제시청, 9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0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13일 정읍시청까지 5일간 권역별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7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첫 강연은 전북연구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의의, 타 특별도와의 차별성,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 추진 일정 등을 설명했다.

또한 시·군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된 특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전문가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도민이 바라는 전북만의 특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특례 발굴에 도민의 역할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이 상상발전 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되게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민선5기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민 포용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설명회, 정책토론회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더 가깝게, 더 친숙하게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보일러 안전예방 사업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도, 기존 흠뎀터 사업 연계... 총 3900세대 시설개선사업 지원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반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 시설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에너지 흠뎀터 사업을 일반 독거노인까지 확대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무주군에서 발생한 보일러 인명사고를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세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진행해왔다.

해당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1,900세대, 일반 독거노인 2,000세대 등 총 3,900세대에 사업비 2억5,600만원이

투입됐다. 세부 지원내용은 난방시설의 노후 부품 교체와 청관제 투입, 무상점검 및 수리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사업이 수혜 범위 확대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바른 보일러 사용법 안내와 점검을 병행하며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부연했다.

전북도는 올해에도 취약계층 1,9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2,600만원을 지원해 보일러 무상점검 및 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정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권역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교 두문외 명칭 담당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스스피치 등변협회 권역회장
- 전북외국어교육 및 기획, 단과 특성교수
- KBS TV아침매출, MBC TV, JT, TBS 2부 및 3부
- 스피치 강연가로서 < 심비성담사 >
- 전주매일 부사장
- 세서 '365스피치어머니케어' "나쁜 세운, 빌, 빌" "스피치 10화" 등
- 스피치 저서, 평생교육사, 시낭송서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집)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관과정이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